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문영숙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 Effects of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Child Abuse and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in Children

Young-Sook Moon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Daej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 rearing attitudes on abuse experience and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in childre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May 25 to June 5, 2009. A questionnaire survey was used with 320 elementary school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r effects of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and child rearing attitude on abuse experience among these children, authoritarian controlling disposition, affectionate disposition and marital conflic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overall abuse experience. These variables were predictors of child abuse and accounted for 30.6% of the variance. For effects of perception of marital conflict, child rearing attitude and abuse experience on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among children,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for marital conflict, neglect, emotional abuse and authoritarian controlling disposition. These variables were predictors of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and accounted for 21.5% of the variance. **Conclu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marital conflict and child rearing attitude are two major variables affecting children's abuse experience and emotional maladjustment behavior.

**Key words:** Conflict, Child rearing, Child abuse, Child behavior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최근 현대사회가 정보화, 산업화, 도시화되어가면서 가족 제도의 핵가족화, 개인주의 팽배, 취업 여성의 증가로 인한 아동보호 기능의 약화 및 가족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동에게 양육과 사회화과정의 가장 큰 원천이 된다, 그러나 모든 아동이 부모로부터 바람직한 양육과 지지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가 아동학대이다(Shaffer, 1999).

2004년도 긴급전화(1391)에 접수된 사건을 분석해 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 장소로 가정이 전체의 75.5%이며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80%가 친부모로 밝혀졌다. 아동학대의 발생원인을 보는 관점은 개인적 특성을 강조하는 정신 병리적 관점과 발달론적 관점, 사회 환경적 특성을 강조하는 사회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문화, 지역사회의 영향력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가정 환경적 특성과 가정경제적 특성, 가정의 사회문화적 특성들을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보고 있다(Lee, 2004).

아동학대는 가정, 학교, 시설 및 사회에서 발생하지만, 가장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는 가정에서 주로 부모 중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접근되어야 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러

주요어: 갈등, 아동양육, 아동학대, 아동행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Young-Sook Moon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685 Gasoowon-dong,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43 Fax: 82-42-545-5326 E-mail: moon@konyang.ac.kr

투고일: 2010년 12월 13일 / 1차수정: 2011년 1월 7일 / 2차수정: 2011년 1월 13일 / 게재확정일: 2011년 1월 19일

한 갈등은 자녀에게 공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부 간의 갈등은 상대방의 자아를 새로 발견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상대방의 가치, 욕구, 목표를 깨닫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과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지배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당사자에게는 물론 다른 가족원에게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때 다른 가족원 중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은 그들보다 약한 그들의 자녀, 아동이다. 아동이 어릴수록 무력하여 어른에게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적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린 아동들을 택해 부부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표현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Lee, 2004). 국내 연구들 중에서도 부부간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이 깊음을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Kim, 2004).

또한 부부간 갈등을 포함한 관계의 질적 특성은 자녀의 양육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적절한 양육은 신체적·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부적절한 양육은 아동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Lo와 Shim (2004)은 지배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부모에게서 자주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자녀의 성장수준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표준을 요구하는 부모는 자녀 훈육에 있어 강압적인 방법이나 처벌을 주로 사용하며, 자녀에게 많은 통제를 하면서 대화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유형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반항적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타나 가출, 비행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은 애정적인 태도와 대립하는 것으로, 자녀를 무시하고 경멸, 부인하는 적대적인 태도에서 발생하며, 부모가 적절한 수준의 훈육을 넘어 지나친 통제 또한 학대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아동들로 하여금 도피와 가출의 동기가 되게 하고 있다(Jung & Kim, 2004)

이상과 같이 부부갈등과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하여 이렇게 날로 증가되어 가는 아동학대는 아동들의 성격 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과잉 행동, 공격행동 등의 외향화된 행동문제와 위축, 우울, 불안 등의 내향화된 행동문제를 모두 높게 지각하였다(Stembery et al., 1993). 또 많은 연구들이 학대받은 아동들은 일반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며 자존감이 낮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며(Olweus, 1994), 공격성과 위축의 특성을 발달시킴을 보고하고 있다. 가정에서의 부모의 갈등, 부적절한 양육태도로 인한 아동의 학대경험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출, 비행,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심한 경우 자살과 정신분열증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Moon & Oh, 2002). 이처럼 아동학대는 단지 학대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학대로 인해 아동의 개인적 능력이 박탈되고 장차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되며, 성장하여 범죄, 주벽 등 반사회적 행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로서는 부부갈등(Lee, 2004), 부모의 양육태도(Aunola & Nurmi, 2005), 양육스트레스(Ammerman & Patz, 1996), 가정·경제적 특성(Kim & Jang, 2002) 등의 아동학대 관련 사회심리적 요인이 연구되어 왔다. 또한 아동학대가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들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Kim & Kim, 2007; Shin & Choi, 2003). 그러나 아동학대의 사회심리학적 요인으로 부모의 갈등, 양육태도를 함께 관련지어 탐색한 연구(Lee, 2004)는 드물며 이러한 요인들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탐색하였으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모두 관련지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학령기 후기인 5, 6학년은 사춘기 시작 시기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인지발달로 변화를 경험하면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동들은 훈육적 차원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며, 아동이 경험하는 학대경험은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상태 및 개인적응과 문제행동 등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성인기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이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의 갈등, 양육태도와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하여 그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부모의 아동학대가 아동의 성장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동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도를 확인한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넷째,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 연구 방법

###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

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T시에 소재하고 있는 2개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에서 최종 모형인 정서 부적응에서 고려한 독립변수는 9개이며 유의수준 5%, 검정력 95%로 하여 표본의 크기가 166명으로 산출되었으며(G\*Power 프로그램), 효과크기는 0.15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표본 크기를 근거로 하여 5, 6학년 학생 350명을 표본으로 하였으며 이 중 미흡하게 응답한 설문지와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30부를 제외한 320부를 연구의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초등학교 선정은 T시 교육위원회에서 지역별로 구분해 놓은 기준인 동부지구, 서부지구의 2개구 지역 중 동일한 지역표집을 위하여 서부지구의 2개구 지역에서 연구의 참여를 허락한 각각 1개교씩 2개교를 표집하였다.

## 연구 도구

### 부부의 갈등

부부갈등 척도는 Grych와 Fincham (1992)이 개발한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를 Lee와 Kwon (1997)이 번안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간의 갈등과 다툼, 조화, 부부관계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갈등의 특성 요인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다'가 2점, '약간 그렇다'가 1점, '그렇지 않다'가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자녀 양육태도

자녀양육태도란 양육 시에 보이게 되는 자녀를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구체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Park과 Lee (1990)가 한국 상황에 맞게 개발하여 타당화한 어머니 양육행동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하위요인으로는 합리적 지도(9문항), 애정(9문항), 권위주의적 통제(9문항), 과보호(9문항), 성취(6문항), 적극적 참여(6문항) 및 일관적 규제(3문항) 등의 7가지 양육태도가 있으나 과보호, 일관적 규제 문항은 신뢰도가 낮아서 하위요인에서 제거하고 분석하였다.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과보호 9문항, 일관적 규제 3문항을 제외하여 본 연구에서는 3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을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평가된다. 점수의 범위는 1-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의 양육

태도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4$ 이었다.

### 아동 학대경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대경험 척도는 Straus (1979)의 Conflict Tactics Scale (CTS) 폭력척도를 번안 수정하고,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현재 실정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Shin과 Choi (2003)가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대경험 척도는 신체적 학대(7문항), 정서적 학대(9문항), 그리고 방임(10문항)의 3개 하위요인의 총 2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도구는 Likert의 4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각 문항의 내용이 자신의 입장에 비추어 '전혀 없다'는 1점을, '1년에 1-2차례'에는 2점을, '한 달에 1-2차례'에는 3점을, '1주일에 1-2차례'에는 4점을 부여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측정도구로서 Achenbach (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 (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국내 연구에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개의 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나누어 각 요인마다 10개의 문항씩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범주는 아동 자신의 모습이나 심정을 잘 나타내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는 1점을 '아니다'는 0점으로 평가된다. 각 하위요인별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많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학교장의 허락을 얻고 담임교사에게 연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에 첨가된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받았다. 학생들에게도 담임교사의 협조를 받아 연구의 목적, 응답자의 무기명, 설문내용에 관한 비밀보장,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외로만 사용할 것, 연구결과 활용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학생 개인의 서면동의를 얻은 후 진행하였다.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 후에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학생들이 설문지 응답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4.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다. 둘째, 대상자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

적응 행동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상자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 연구 결과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은 49.4%, 여학생은 50.6%이었으며, 형제 수는 2명이 58.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3명으로 23.8%이었다. 부모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40대가 각각 79.1%, 55.6%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53.4%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50.3%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에서는 71.6%의 아동이 자가의 형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91.9%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와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320)

Variable	Classification	Frequency	%
Gender	Male	158	49.4
	Female	162	50.6
Number of sibling	One	43	13.4
	Two	187	58.4
	Three	76	23.8
	Four or above	14	4.4
Father age (year)	Below 39	43	13.4
	40-49	253	79.1
	50-59	24	7.5
Mother age (year)	Below 39	130	40.6
	40-49	178	55.6
	50-59	12	3.8
Level of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2	3.8
	High school	137	42.8
	University or above	171	53.4
Level of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2	3.8
	High school	161	50.3
	University or above	147	45.9
Residence	Own house	229	71.6
	Rent house (deposit basis)	43	13.4
	Rent house (a monthly basis)	36	11.2
	Ect	12	3.8
Parent occupation	Yes	294	91.9
	No	26	8.1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아동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는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부부갈등은 최대 40점 점수분포에서 10.07의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양육태도의 평균점수는 5점 만점 중 합리적 지도 성향이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성취지향적 성향 3.92점, 애정적 성향 3.89점 순이었다.

학대경험 평균점수는 4점 만점 중 정서적 학대가 1.22점으로 가장 많이 지각하였고 신체적 학대가 1.16점, 방임이 1.09점 순이었으며 전체 학대경험 평균점수는 1.15이었다.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각각의 하위 척도가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최대 10점의 점수분포를 나타낸다. 가장 많이 나타난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평균 3.16점으로 강박행동이었으며, 과잉행동 2.50점, 퇴행행동 1.89점, 공격행동 1.75점, 위축행동 1.63점 순이었고, 전체 정서적 부적응 행동 정도는 전체 50개 문항의 최대 50점에서 10.93점을 나타내었다.

###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은 긍정적 양육태도인 합리적 지도 성향( $r=-.29, p<.001$ ), 애정적 성향( $r=-.28, p<.001$ ), 적극적 참여 성향( $r=-.23, p<.001$ )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r=.25, p<.001$ )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부갈등과 학대경험과는( $r=.38, p<.001$ )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부갈등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에서도 위축행동( $r=.30, p<.001$ ), 과잉행동( $r=.22, p<.001$ ), 공격행동( $r=.24, p<.001$ ), 퇴행행동( $r=.29, p<.001$ ), 강박행동( $r=.30, p<.001$ ) 전체 정서적 부적응 행동( $r=.33, p<.001$ ) 모두에

**Table 2.** Score for Marital Conflict, Child Rearing Attitude, Child Abuse,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Variable		Minium	Maxium	Mean	SD
Marital conflict		0.00	38.00	10.07	7.87
Child rearing attitude	Rational guidance	1.00	5.00	3.93	0.80
	Affectionate	1.00	5.00	3.89	0.86
	Authoritarian controlling	1.00	4.22	2.39	0.66
	Achievement-oriented	1.00	5.00	3.92	0.76
Child abuse	Active involvement	1.00	5.00	3.00	0.88
	Total	1.80	4.83	3.67	0.62
	Physical abuse	1.00	4.00	1.16	0.32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Emotional abuse	1.00	4.00	1.22	0.41
	Neglect	1.00	3.00	1.09	0.25
	Total	1.00	3.50	1.15	0.27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Withdrawal behavior	0.00	10.00	1.63	2.08
	Hyperactivity behavior	0.00	10.00	2.50	2.33
	Aggressive behavior	0.00	10.00	1.75	2.09
	Regressive behavior	0.00	10.00	1.89	2.00
	Compulsive behavior	0.00	10.00	3.16	2.73
	Total	0.00	46.00	10.93	9.08

**Table 3.** Correlation among Marital Conflict, Child Rearing Attitude, Child Abuse,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1	V12	V13
V1	1												
V2	-.29***	1											
V3	-.28***	.83***	1										
V4	.25***	-.18**	-.31***	1									
V5	-.16**	.71***	.67***	.03	1								
V6	-.23***	.72***	.74***	-.05	.59***	1							
V7	.38***	-.31***	-.41***	.42***	-.22***	-.22***	1						
V8	.30***	-.15**	-.19**	.21***	-.13*	-.18**	.28***	1					
V9	.22***	-.15**	-.20***	.18**	-.12*	-.17**	.39***	.43***	1				
V10	.24***	-.11*	-.16**	.21***	-.05	-.13*	.33***	.40***	.65***	1			
V11	.29***	-.09	-.15**	.26***	-.06	-.05	.30***	.64***	.50***	.51***	1		
V12	.30***	-.10	-.15**	.22***	-.07	-.07	.30***	.63***	.56***	.55***	.74***	1	
V13	.33***	-.15**	-.21***	.26***	-.10	-.15**	.40***	.76***	.78***	.77***	.84***	.88***	1

\* $p < .05$ ; \*\* $p < .01$ ; \*\*\* $p < .001$ .

V1=Marital conflict; V2=Rational guidance V3: Affectionate; V4=Authoritarian controlling; V5=Achievement-oriented; V6=Active involvement; V7=Child abuse; V8=Withdrawal behavior; V9=Hyperactivity behavior; V10=Aggressive behavior; V11=Regressive behavior; V12=Compulsive behavior; V13=Total: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Table 4.** Influential Factors on Child Abuse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Physical abuse	Authoritarian controlling	0.123	0.025	.252	4.975***	.231
	Affectionate	-0.079	0.019	-.212	-4.154***	
	Marital conflict	0.008	0.002	.199	3.985***	
Emotional abuse	Authoritarian controlling	0.166	0.030	.266	5.480***	.289
	Affectionate	-0.121	0.023	-.255	-5.202***	
	Marital conflict	0.012	0.003	.221	4.602***	
Neglect	Achievement-oriented	-0.063	0.017	-.193	-3.745***	.116
	Authoritarian controlling	0.072	0.020	.191	3.639***	
	Marital conflict	0.005	0.002	.145	2.728**	
Total	Authoritarian controlling	0.114	0.020	.276	5.753***	.306
	Affectionate	-0.080	0.015	-.252	-5.202***	
	Marital conflict	0.008	0.002	.236	4.954***	

\* $p < .05$ ; \*\* $p < .01$ ; \*\*\* $p < .001$ .

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대경험 간의 관계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인 합리적 지도 성향( $r = -.31, p < .001$ ), 애정적 성향( $r = -.41, p < .001$ ), 성취지향적 성향( $r = -.22, p < .001$ ), 적극적 참여 성향( $r = -.22, p < .001$ )은 학대경험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r = .42, p < .001$ )과는 학대경험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애정적 성향이 전체 정서적 부적응 행동( $r = -.21, p < .001$ )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이 전체 정서 부적응 행동( $r = .26, p < .001$ )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위축행동( $r = .28, p < .001$ ), 과잉행동( $r = .39, p < .001$ ), 공격행동( $r = .33, p < .001$ ), 퇴행행동( $r = .30, p < .001$ ), 강박행동( $r = .30, p < .001$ ), 전체 정서적 부적응 행동( $r = .40, p < .001$ )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먼저 아동의 학대경험인 신체적 학대에는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beta = .252, p < .001$ )의 양육태도가 제일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애정적 성향, 부부갈등의 세 변인에 의한 전체 설명력은 23.1%였다. 정서적 학대경험에도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beta = .266, p < .001$ )의 양육태도가 큰 영향력을 보였고 애정적 성향, 부부갈등을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28.9%였다.

방임의 학대경험에는 성취지향적 성향의 양육태도( $\beta = -.193, p < .001$ )가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부부갈등을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11.6%였다. 아동이 지각한 전체 학대경험에는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 $\beta = .276, p < .001$ )의 양육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애정적 성향, 부부갈등을 포함한 전체 설명력은 30.6%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Table 5.** Influential Factors on Emotional Maladjustment of Behavior

Variable		B	SE	β	t	R <sup>2</sup>
Withdrawal behavior	Marital conflict	0.055	0.014	.208	3.915***	.156
	Neglect	1.610	0.432	.193	3.723***	
	Authoritarian controlling	0.333	0.164	.106	2.029*	
	Active involvement	0.241	0.121	-.102	-2.000*	
Hyperactivity behavior	Emotional abuse	1.440	0.304	.253	4.731***	.148
	Neglect	2.040	0.501	.218	4.071***	
Aggressive behavior	Emotional abuse	1.091	0.291	.214	3.748***	.128
	Marital conflict	0.036	0.014	.135	2.487*	
	Neglect	1.043	0.459	.124	2.275*	
Regressive behavior	Marital conflict	0.054	0.013	.213	4.090***	.151
	Neglect	1.396	0.412	.175	3.384**	
	Authoritarian controlling	0.497	0.157	.165	3.164**	
Compulsive behavior	Marital conflict	0.079	0.018	.228	4.354***	.141
	Neglect	1.992	0.570	.182	3.495**	
	Authoritarian controlling	0.490	0.217	.118	2.259*	
Total	Marital conflict	0.241	0.060	.209	4.035***	.215
	Neglect	7.609	1.897	.209	4.011***	
	Emotional abuse	3.143	1.262	.142	2.491*	
	Authoritarian controlling	1.446	0.727	.105	1.990*	

\* $p < .05$ ; \*\* $p < .01$ ; \*\*\* $p < .001$ .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인 위축 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에는 부부갈등, 방임,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의 양육태도가 영향력을 보였으며 모두 유의하였다. 과잉행동, 공격행동에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전체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는 부부갈등, 방임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정서적 학대,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의 양육태도를 포함하여 모두 2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부모 자녀관계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정도와 양육태도와 함께 아동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 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와 그 관계를 알아보고,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았으며 주요 결과들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는 최대 40점의 점수분포에서 평균 10.07점이었고, 양육태도는 합리적 지도 성향이 5점 만점 중 평균 3.93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부갈등이란 부부 상호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나 상충

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원만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 그러한 갈등은 자녀에게 공격을 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인 간의 분노적 상호관계를 대면한 아동은 행동적으로 괴로움이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며, 스트레스 증가를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평균 10.07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상자들 부모의 부부갈등 정도가 전반적으로 매우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Lee와 Moon (2007)의 초등학교 6학년 27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을 연구한 결과에서도 전반적으로 부부갈등을 보통 이하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부가 처한 가정의 인적, 물적 환경은 부부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부갈등과 관계되나,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부모 모두의 교육수준이 높고, 부모의 직업에서도 거의 직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대상자의 부부갈등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많이 지각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합리적 지도 성향이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그 대리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사랑과 애정 속에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협동적이고 정직하며 신중한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거부와 무관심 속에 자란 아동은 자주 화를 내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일이 많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Lee (2004)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 안일, 비합리적이면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은 애정적인 태도와 대립하는 것

으로, 자녀를 무시하고 경멸·부인하는 적대적인 태도에서 발생하며, 부모가 적정한 수준의 훈육을 넘어 지나친 통제 또한 학대행위가 발생하기 쉬워 아동들로 하여금 도피와 가출의 동기가 되게 하고 있다(Jung & Kim, 2004).

학대경험에서는 정서적 학대가 평균 1.22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 신체적 학대, 방임 순이었다. 학대경험 평균점수는 4점 만점으로 산출되므로 대상자들이 지각한 학대경험은 매우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의 평균점수는, 초등학교 5, 6학년 510명을 대상으로 학대경험을 연구한 Shin과 Choi (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으며, Lee와 Moon (2007)의 연구에서도 대상자들이 정서적 학대경험을 가장 많이 보고하고 있다. 정서적 학대란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아동의 정서적·정신적 측면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다른 유형의 학대보다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더욱 치명적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자신감을 잃게 하거나 위축되게 할 수 있고, 아동의 인격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Shin & Choi, 2003).

정서 부적응 행동(위축행동·과잉행동·공격행동·퇴행행동·강박행동)은 강박행동이 평균 3.16점(최대 10.0점)으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나타내었다. 아동에게 있어서 정서적 안정감은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발달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 상태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정서적 불안정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하여 학교 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없으며, 공격이나 퇴행의 행동을 보이고, 심리적인 강박으로 자기에게 기대된 것을 할 수 없는 아동이며, 정상적인 지적능력이 있어도 부적절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Kim & Kim, 2007)

둘째, 부부갈등은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부부갈등,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연구한 여러 연구들(Kim & Do, 2001; Lee, 2004)에서도 부부간 결혼만족도가 낮거나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심한 경우 자녀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에 관련이 깊음을 보고하고 있다. 즉 부부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결국 부부관계의 문제가 자녀에게까지 학대행위와 같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에 대한 학대가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쉽게 용납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 반응으로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학대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양육태도와 학대경험 간 관계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Lee (2004)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선행 연구 중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보면 Lee와 Moon (2007)은 지배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부모에게서 자주 아동학대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자녀에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며 자녀의 성장수준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표준을 요구하는 부모는 자녀 훈육에 있어 강압적인 방법이나 처벌을 주로 사용하며, 자녀에게 많은 통제를 하면서 대화는 거의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유형의 환경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반항적 행동이 충동적으로 나타나 가출, 비행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여러 연구 결과들(Jo, Suk, & Park, 2005; Kim & Kim, 2007; Shin & Choi, 2003)과 일치하고 있다. 학대받은 아동은 대부분 불행·슬픔·절망감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으며 공격성·충동적·도전적·반항적·파괴적이며, 잔인하고 거짓말과 도벽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사회적 행동특성이 있다(Kim & Kim, 2007). Shin과 Choi (2003)의 연구에서도 학대가 심할수록 아동은 사회적 위축·정서 불안·강박·우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셋째,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애정적 성향의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전체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30.6%였다. Lee (2004), Lee와 Moon (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상당히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는 아동 학대를 유발하는 중요한 변수이며, 부부갈등이 심화될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경험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과 애정적 성향의 양육태도가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일수록 아동학대가 적으며,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아동학대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통제적 양육행동의 어머니는 애정적 양육행동의 어머니보다 신체적 벌을 더 자주 사용하며 권위주의적인 언어적 지시나 통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들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은 학대를 경험하게 된다. 반면 자녀를 수용하고 온정적인 어머니의 자녀들은 학대를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이에 관한 구체적 연구를 보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배적이고 적의적일수록 아동의 학대경험이 많았다(Lee & Lee, 2000; Mussen, 1979). 결과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에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부갈등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아동학대의 30.6%를 설명하고 있다.

넷째,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대한 전체 변인들의(부부갈등·양육태도·학대경험) 영향을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부갈등·방임·정서적 학대의 학대경험·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의 양육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1.5%였다. 부부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적응 행동을 연구한 Kim과 Kim (2007)의 연구 및 다른 연구(Lee & Jang, 2000; Shin & Choi, 2003)에서도 부부갈등·정서적 학대, 방임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가 이들 변수들의 더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아동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방임과 정서적 학대를 아동이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과 같은 부정적 양육태도일수록,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는 부부갈등·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아동학대,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의 양육태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부부갈등·부모의 양육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이 변인들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처럼 부모의 갈등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에 아동은 학대받으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예방하고 건강한 아동의 성장발달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부모와의 관련된 변인들을 경험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아동 건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상자가 대전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측정할 때 자기보고식 질문지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 조사 연구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례연구를 통한 분석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는 사회의 변화와 탈가족화, 이혼율의 증가로 인한 재구성 가족의 증가, 편부·편모가정의 증가 등이 큰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환경을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 자녀관계를 사정하고 이러한 변인들과 학대,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한다.

둘째, 부부갈등, 양육태도, 아동의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정적인 상관관계는 아동학대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나아가 아동학대,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차원에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통제성향 양육태도, 방임, 정서적 학대의 부모 자녀관계를 사정하고 올바른 부모교육 등의 간호중재 개입을 통해 예방, 치료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와 관계를 알아보고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와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연구로서, 수집된 자료는 빈도·백분율·평균과 표준편차·피어슨 상관계수·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부부갈등은 평균 10.07점이었고, 양육태도는 합리적 지도 성향이 평균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경험 평균점수는 정서적 학대가 1.22점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적 부적응 행동은 강박 행동이 평균 3.16점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부부갈등은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와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부부갈등과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양육태도와 학대경험 간 관계에서는 긍정적 양육태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부정적 양육태도인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에서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부부갈등, 양육태도가 아동이 지각한 학대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권위주의적 통제성향, 애정적 성향, 부부갈등이 전체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30.6%였다.

넷째,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이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갈등, 방임, 정서적 학대, 권위주의적 통제 성향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21.5%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 양육태도, 학대경험, 정서적 부적응 행동의 정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며, 부모 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갈등 정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학대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까지 유의한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 중심의 아동간호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Achenbach, T. M. (1978). The child behavior profile: I. Boys aged 6-11.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46, 478-488.

Ammerman, R. T., & Patz, R. J. (1996). Determinants of child abuse potential: Contribution of parent and child fact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5, 300-307.

Aunola, K., & Nurmi, J. E. (2005). The role of parenting style in children's



-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6, 1144-1159.
- Grych, J. H., Seid, M., & Fincham, F. 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Jo, Y. J., Suk, J. Y., & Park, I. J. (2005).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 from their parents on self-control and aggressive behavior of adolescents: Differences between ordinary and delinquent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 133-163.
- Jung, M. J., & Kim, M. J. (2004).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their perceptions of parental childrearing practices.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11-27.
- Kim, H. M., & Kim, Y. M. (2007). The effect of family violence witness and child abuse experience on youth's maladaptive behavior.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1, 31-60.
- Kim, H. Y., & Jang, W. J. (2002). A study of the influences of parents risk factors on the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6, 269-286.
- Kim, J. L. (2004).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3, 683-690.
- Kim, M. J., & Do, H. S. (2001). The influence of parenting behaviors, marital conflict, and sibling relations on agg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Child Studies*, 22, 149-166.
- Lee, C. D., & Kwon, Y. O. (1997). A validation study on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8, 65-79.
- Lee, G. E., & Jang, D. H. (2000). The effect of the family violence on the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7, 95-123.
- Lee, G. H., & Moon, H. J. (2007). The relationship of father's child-rearing behavior, parent's marital conflict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6), 77-88.
- Lee, J. H., & Lee, Y. H. (2000). The effect of child and parent factors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4, 113-123.
- Lee, K. N. (2004). The effects of child's perceived marriage conflict, mother's parenting and child's behavior problems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3, 63-73.
- Lo, K. S., & Shim, H. O. (2004). Bullying and victimization with perception of parenting behaviors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hild Studies*, 25, 241-257.
- Moon, K. J., & Oh, K. J.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and early adolescen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 29-43.
- Mussen, P. N. (1979). *The psychology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NY: Prentice Hall.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Park, S. Y., & Lee, S. (1990).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Korean maternal behavior inventory.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8, 141-156.
- Quay, H. C. (1972). *Psychopathological disorders of childhood*. (2nd ed.). New York, NY: Wiley.
- Shaffer, D. R. (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and adolescence*.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in, H. Y., & Choi, H. L. (2003). The relations among child abuse by parents, child's aggress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5, 295-307.
- Sternberg, K. J., Lamb, M. 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 M., et al.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5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1, 75-78.